# 평양인의 자기 인식

## - 읍지 자료를 중심으로 -

**이 은 주***

1. 서론
2. 정체성의 단위와 평양 읍지
  1) 평안도 내부의 기억 공동체
  2) 평양 읍지의 지역민 서술
3. 평양인의 자기 인식
  1) 중앙과의 거리 문제
  2) 문명과 '首都' 의식
4. 결론

## 1. 서론

'서북'의 축자적 의미는 평안도와 황해도, 함경도를 아우르는 것이지만, 평안도에서 '서북인 차별'을 언급한다면 황해도나 함경도는 자연스럽게 제외될 것이다. 여러 자료에서 서북인을 언급할 때 실제로 각 상황에서 지칭하는 범위는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8세기 초 평양 사인 金漸(1695~1775?)이 편찬한 『西京詩話』와 『漆翁冷屑』에서[1] 蘇世讓의 誣告로 인한 청요직 좌절, 숙종대의 李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1) 『칠옹냉설』은 그동안 『서경시화』의 후반부로 인식되었으나 별개의 책이다. 이은주, 2020 「평안도 인물 일화집 『칠옹냉설』 연구」 『대동문화연구』 111, 31-37면. 『서경시화』는 1728년에 평양 문인으로 한정하여 1차 편찬을 했고, 그 뒤에 평안도 문인으로 확대하여 1733년 증보 작업을 마쳤다. 현재 『칠옹냉설』은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과 조종업이 엮은 『한국시화총편』에 수록된 필사본 2종을 확인할 수 있는데,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도 분량과

禎과 呂必禧의 평안도 풍속 비방을 평안도 차별의 근거로 제시한 것을 보면, 지역민에게 유의미하게 체감된 차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2] 평안도 차별을 다룬 논의들은 이런 내용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평안도 차별은 외부의 사람들이 발견해낸 것이 아니라 내부 구성원의 자기 인식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3]

그렇다면 '평안도 사람들'은 단일한 공동체일까. 전근대 시기에 '道'가 행정 단위를 넘어 도내 전 지역을 결속하고 같은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의 단위로 기능했던 것일까.[4] 이를테면 소세양 일화는 평안도 전 지역에서 공유되었던 것도,

---

수록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위 논문에서는 각 필사본의 편자를 확정하지는 못했으나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칠옹냉설』에 언급된 "余外曾祖西亭田公諱闢"을 보면 외증손임을 명기한 김점의「西亭公事蹟」(1730년 작성. 田載昌, 1997『南原田氏族譜』, 한국족보신문사 수록)이 있어서 최소한 국편본의 편자는 김점임을 확인할 수 있다.『한국시화총편』수록 필사본은 국편본을 수정 증보한 것으로 추측되나 상세한 제작 상황은 알 수 없다.

2) 金漸 編,『西京詩話』;『漆翁冷屑』上,「鯁直」. 물론 그밖의 여러 자료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인 1726년에 義州 幼學 金德老가 평안도 인사의 청요직 진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소문을 올린 것도 유사한 인식의 결과일 것이다. 청요직 진출과 관련하여 평안도 사람에 대한 차별은 오수창, 2008「조선시대 평안도 출신 문신에 대한 차별과 통청」『한국문화연구』15 참조.

3) 본고는 평안도 사람들이 관직 진출에서 차별을 당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이런 점들을 입증하려고 했던 선행 연구의 기조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다. 평안도 차별에 대한 논의는 오수창, 2002『조선후기 평안도 사회발전연구』, 일조각; 위의 논문 참조. 다만 평안도 사람들만 유의미하게 차별을 당했다기보다는 서울 사람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지방 사람들이 열세에 있었고, 평안도 차별 논리는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평안도에서 특히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론화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 평안도 차별 문제는 다른 지역의 차별과 함께 비교·검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논의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 자기 지역이 차별당하고 있다는 인식은 다른 지역민도 가지고 있다. 개성인의 차별 인식은 이은주, 2011「박문규의 집구시집『천유집고』연구」『한국한시연구』19, 74면; 양정필, 2017「조선시대 개성 지역에 대한 차별과 개성인의 정체성」『중앙사론』46 참조. 전라도 흥덕 출신 황윤석의 호남 차별 인식은 배우성, 2006「18세기 지방지식인 황윤석과 지방인식」『한국사연구』135; 이지양, 2008「호남선비 황윤석이 본 '호남차별' 문제」『동양한문학연구』27 참조.

4) 본고에서는 '자기 인식', '정체성', '기억의 공동체'라는 단어를 집단 개개인의 기억을 수집한 집합기억(collected memory)이 아니라 소속집단 구성원의 집단적인 관점을 의미하는, 곧 기억의 공동체로서의 집단기억(collective memory)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했다. 제프리 K.올릭(강경이 옮김), 2011『기억의 지도』, 도서출판 옥당, 48-68면 참조. 그런 관점에

비슷한 반응을 보였던 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는 개별 상황을 강조하는 수사적 표현일 때도 있으므로 그 안에 혼재된 보편성과 개별성은 좀 더 따져봐야 할 문제일 것이다.[5] 자기 정체성의 단위와 함께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시대나 상황에 따라 자기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여건이 달라지거나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면 이전 세대의 기억을 수정하거나 더 공고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평안도 연구는 도 단위에서 내부의 정체성이나 인식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는데, 이런 논의는 평안도 각 지역의 인식을 토대로 귀납하는 과정을 동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본고에서는 같은 정체성, 동일한 기억의 공동체를 논의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지역민이 실무자가 되어 만드는 읍지라고 판단했다. 읍지는 개별 저술과는 달리 제작 단계에서 해당 지역의 사인들이 실무진으로 참여하므로 읍지의 내용을 구성하고 자료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지역민의 집단적 인식이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이다.[6] 그렇다면 구체적인 지역 단위로 접근할 때 지역민에 대한 서술이 평안도 차별 인식과 같은 맥락으로 나타날까. 본고에

---

서 본고에서는 지명도 있는 인물의 개별 저술보다 지역민의 공동 작업인 읍지를 더 유의미한 자료로 보았다.

5) 하나의 도가 그 안에 각기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보인다는 논의는 본고만의 독특한 관점이 아니다. 지세, 기후, 방언, 행정구역을 고려하여 영남 지역을 안동, 상주, 경주, 대구, 김해, 진주 6개 소지역으로 분류한 손명원, 2016「영남지역 내 하위지역 구분」『한국지역지리학회지』22(1) 참조. 평안도도 이미 여러 선행 연구에서 '청남'-'청북' 같은 도내의 갈등을 다루었다. 청북 지역을 중심으로 정리한 논의는 김선주(김범 옮김), 2020『조선의 변방과 반란, 1812년 홍경래 난』, 푸른역사 참조. 본고는 심사서에 제시된 지적에 따라 여러 대목에서 내용과 자료를 보완하였다. 본고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조언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깊이 감사드린다.

6) 평양 읍지로 한정하면 대체로 관찰사가 책임자, 지역민이 실무자가 되어 제작했던 것 같다. 물론 읍지마다 상황은 달라서 관찰사의 개입 정도에는 편차가 있다. 1590년 읍지에서는 관찰사 尹斗壽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 같지만, 1730년 읍지에서 윤유(尹游)는 그보다 약하고 오히려 지역민의 존재감이 강조되었다. 1835년, 1855년 읍지에는 관찰사의 서문조차 없다. 1892년 읍지에서 南廷哲은 읍지 완성을 보지 못한 채 이임했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체제를 결정한 주체는 남정철인 듯하며 1905년 읍지에서 군수 李承載는 서문을 써준 정도였다.

서는 이런 질문에 대답하고자 편의상 평안도의 여러 읍지 중에서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5차례 간행되어 통시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평양 읍지로 범위를 한정해서 지역 내부의 인식과 그 인식의 시대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했다.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주 자료는 평양 읍지 5종(1590년, 1730년, 1837년, 1855년, 1892년 간행 읍지)이며[7] 지역민의 자기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두어 이 문제에 다가가 보려고 한다.

## 2. 정체성의 단위와 평양 읍지

### 1) 평안도 내부의 기억 공동체

평안도 차별과 관련하여 가장 파장이 컸던 사건을 꼽으라면 1714년에 있었던 여필희 사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關西辨誣疏 사건'으로 명명된 이 사건은 실제로 당시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고 여러 지역의 읍지에도 수록되었다. 암행어사 여필희가 보고한 내용은 평양에는 선현의 유풍이 있지만, 나머지 지역은 무지하고 어리석으며 특히 청북 지역은 더욱 문란하고 혼탁하다는 것이었다. 이 보고 내용이 알려지자 관서 유생 吉仁和가 주축이 되고 160여 명이 연명하여 보고 내용을 반박하는 동시에 여필희를 규탄하는 상소문을 올렸다.[8]

---

7) 평양 읍지의 편찬 역사와 각 읍지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은주, 2020「평양 읍지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한국한문학연구』 77 참조. 평양 읍지는 소장 기관을 특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다만 1892년 읍지는 숭실대 박물관에 완본이, 고려대 도서관에 낙질본이 소장되어 있다. 1590년, 1837년, 1855년 읍지는 다음의 두 자료에 수록되어 있다. 김병연 편, 1965『평양지』, 平南民報社·古堂傳·平壤誌刊行會; 이태진·이상태 편, 1990『(조선시대) 사찬읍지』, 한국인문과학원(제45책-제47책).

8)『숙종실록』 1714년 7월 26일자 기사. 여필희의 보고로 관서 유생이 상소문을 올린 관서변무소 사건은 서북 차별의 단적인 근거로 제시되었다. 오수창, 1996「조선후기 평안도 지역 차별의 극복 방향」『역사비평』 33; Sun Joo Kim, 2013 "Defending Regional Elite Identity and Culture," *Voice from the North*,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하명준, 2014「18세기 전반 평안도 유생의 지역인식과 관서변무소 사건」『한국사연구』 167 참조. 관서변무소 사건은 오수창의 논의를 필두로 이후 구체적으로 다듬는 양상을 보여왔다. Sun Joo Kim이 최대한 상세하게 사건을 서술하면서 이시항의 대응 논리에 주목

매우 모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이 평안도 전역을 규합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비판의 범위를 한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평양을 빼고 특히 청북 지역을 명시했기 때문에 이후 여필희가 10월 8일에 監試 覆試에 參試官으로 파견되었을 때에도 청북의 유생들은 거세게 반발하여 과거 응시 거부로 맞선 반면, 평양 유생들은 이런 집단행동에 미온적이었고, 이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청북 유생들이 평양 유생을 원망하게 되는 결과를 빚었다.[9] 그런데 유의할 대목은 청북 지역을 비판했다고 해서 청북 지역 전체가 관서변무소 사건을 지역사 서술에 포함시킨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상소를 주도했던 길인화(疏頭, 영변 사람), 李時恒(製疏, 雲山 사람),[10] 李震業(寫疏, 龜城 사람), 金南獻(疏色, 定州 사람), 鄭尙祐(疏色, 鐵山 사람), 朴敬一(疏色, 成川 사람)의 지역 읍지 중에서 청남에 속하는 성천을 제외한 읍지에서 모두 이 사건을 수록했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여기에 용천 읍지, 태천 읍지, 의주 읍지를 추가할 수 있다.[11] 그런데 청북에

---

했다면, 하명준은 상소 작성자인 이시항과 이만추의 입장과 함께 당시 알려진 내용의 사실 여부도 다루었다.

9) 李萬秋, 『安窩先生文集』 권2, 「平安道卞誣疏」. 관서변무소 사건의 경과에 대해서는 하명준, 위의 논문 참조. 관서변무소 사건의 여파가 이듬해에도 지속되어 숙종 41년(1715) 봄에 시행된 과거에서 평양 유생은 처음에는 과거 응시 거부에 동참하였으나 나중에는 관찰사의 설득으로 거부하는 대열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자 청북인은 그것을 "마음 깊이 원수처럼 미워해서" 과거에서 시관을 협박하였고 과장에서 응시자들을 내쫓았는데 이 일로 인해 청북 유생과 평양 유생의 사이가 벌어져서 "자기들이 서로 원수처럼 원망하게" 되었다.

10) 19세에 처가가 있던 평양으로 이주한 이시항은 이때 출신지를 출생지인 '운산'으로 밝혔다.

11) 전근대 시기 읍지가 대개 기존 읍지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양상을 띠는 반면, 20세기 이후에 간행된 읍지들은 기존 읍지들을 집대성하거나 취사·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기억의 역사'를 확인하기에 더 적합하다. 필자가 확인한 20세기 이후 청북 읍지 중에서 '관서변무소'를 수록한 읍지는 다음과 같다. 영변군민회, 1971 『寧邊志』, 서울활판사; 운산군지편찬위원회, 1978 『雲山郡誌』, 운산군지편찬위원회; 구성군지 편찬위원회, 1994 『龜城郡誌』(증보판), 구성군민회; 정주군지편찬위원회, 1975 『定州郡誌』, 정주군지편찬위원회; 철산군민회, 1976 『鐵山郡誌』, 철산군민회; 용천군지편찬위원회, 1998 『龍川郡誌』, 평안북도용천군민회; 태천군민회, 1973 『泰川郡誌』, 태천군민회; 의주군민회, 1975 『義州郡誌』, 의주군민회편찬위원회. 상소문을 제작한 인물이 있는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민의 참여나 자기 지역의 의미를 강조했다. 용천 읍지와 태천 읍지에서는 많은 지역민이 서명에 참여했다는 점을 언급했고, 의주 읍지에서는 상소문에서 임진왜란

속하는 지역이어도 이 사건을 언급하지 않은 읍지도 있으므로,[12] 이렇게 보면 '청북' 전체가 공통된 기억을 가진 단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청북 지역 중에는 여필희의 비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 아예 다른 기억을 가진 지역도 있다. 평안도에서는 1695년에 별과를 설행하면서 합격자 인원을 '청남', '청북' 지역별로 할당하면서 청천강 이남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었던 청북 유생을 배려했고, 1728년에 별시를 설행할 때에는 강변 6읍의 유생들을 위해 따로 이 지역 합격자 1인을 정원에 추가했다. 평안도 전 지역 유생들이 별시 설행을 간절하게 원한다고 해도 청천강 남과 북, 강변 6읍으로 합격자 정원이 할당된다면, 이들 간에 또 다른 이해관계가 개입하는 셈이었다. 이렇게 되면 각 지역 유생들의 입장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강변 유생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 강계 읍지에서는 이때의 조치와 관련하여 역대 강계부사들이 올린 상소문을 요약해서 수록했다. 강변 6읍은 압록강 연변에 위치한 강계, 楚山, 昌城, 朔州, 渭原, 碧潼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지역에서는 그동안 지리적으로 한양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과거에 응시하러 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문제를 호소해 왔다. 부사와 어사가 서계를 올린 끝에 1709년에 별과를 설행하였지만 정작 문과가 설행되지 않았는데, 1713년에 암행어사 여필희가 이런 사정을 알고 강변의 별시를 정주의 공도회처럼 설행하고 강변 6읍에 합격자 2명을 추가로 할당하자는 제안을 올렸으니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다.[13] 최소한 강변 읍지에서 여필희는 평안도 풍속을 비난한 인물이 아니라 강변 유생들에게 희망을 준 구원자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어떤 사안에 대해 도내에서 보이는 반응이 다르다는 점도 있지만, 이와 함께

---

때 선조가 몽진한 의주를 언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12) 청북 지역 중에서 이 사건을 수록하지 않은 읍지는 다음과 같다. 안주군민회, 1989『내고장 安州』, 홍우종; 선천군지편찬위원회, 1977『宣川郡誌』, 선천군지편찬위원회; 강계군민회, 1966『江界誌』, 강계군민회; 후창군민회, 1980『厚昌郡誌』, 후창군민회; 희천군지편찬위원회, 1980『熙川郡誌』, 희천군민회; 삭주군민회, 1991『朔州郡誌』, 삭주군민회; 박천군민회, 1979『博川鄕土誌』, 박천군민회.

13) 『江界誌』, 「江邊人才薦用」, 「道科請設」(이태진·이상태 편, 1990『(조선시대) 사찬읍지』 55, 한국인문과학원 수록). 『승정원일기』 1726년 2월 11일 기사에 신택의 상소문 전문이 실려 있다.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현상이 있다. 시대가 흐르면서 각 지역에서 읍지를 간행하게 되면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유적을 중심으로 그전에는 통합되었던 어떤 내용이 분화되어 각각의 지분을 가져가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14] 예컨대 평양은 대체로 고조선, 기자조선, 고구려라는 세 나라의 도읍지였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단군과 기자, 동명왕을 강조해왔다. 평양에는 단군과 기자, 동명왕의 사당이 있었고 단군의 유적은 따로 없지만 기자나 동명왕은 관련된 여러 유적이 있었기 때문에 1590년과 1730년 읍지에는 단군, 기자, 동명왕이 함께 부각되었다. 또 1590년 읍지의 인물 항목에는 온달과 을지문덕을 수록하였고, 전란 이후 간행된 1730년 읍지에서는 구국의 영웅으로서 을지문덕을 특히 강조하였다. 그러나 19세기 이후로 들어오면 양상이 달라져서 유적 또는 관련된 곳을 보유한 지역의 목소리가 더 크게 나타난다.

예컨대 단군은 영변 읍지, 운산 읍지, 강동 읍지에서 강조되고 있다. 단군의 아버지 환웅이 태백산 檀木 아래로 내려왔다고 할 때 태백산은 영변의 묘향산을 가리킨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변 읍지에서는 환인, 환웅, 단군을 중요하게 서술하였다. 강동에는 단군묘가 있었고 단군묘는 19세기 말에는 단군릉으로 격상되어 지역민에게 강동을 대표하는 유적이 되었다.[15] 동명왕도 상황

14) 행정 구역을 재편하면서 새롭게 영역이 정해진 지역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에 걸친 몇 차례의 행정 구역 개편으로 중화군이 원래 별개의 지역이었던 상원군을 병합하게 되었다. 이런 변화에 대한 내용은 중화군민회, 1989『중화군지』, 평안남도 중화군지편찬위원회 참조. 이 읍지에서는 상원읍에서 발견된 구석기 유물을 토대로 지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새로 재편된 행정 구역 속에서 다시 새롭게 지역 정체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15) 19세기 말 평양의 위상에 대해서는 하명준, 2016『조선후기~근대개혁기 평안도의 정치·문물 신장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56-173면 참조. 고종은 1897년에 황제국을 선언한 뒤 1902년에 평양을 서경으로 삼고 풍경궁을 조성했다. 그러나 이 논문의 관점은 1902년 5월 1일 김규홍이 평양을 서경으로 삼고 풍경궁을 세우자는 상소문을 올렸으나 이미 석 달 전인 2월 5일에 김관호의 공사 보고가 있으므로 고종의 구상이 1880년대부터 시작된 것이며, 1889년에 기자묘가 기자릉으로, 1891년에 동명왕묘를 추봉하고 1900년에 단군묘가 단군릉으로 격상된 것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여 평양이 기자릉, 동명왕릉, 단군릉이 포진한 황제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구상을 그전으로 소급해 올라가려면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할 것이다. 또 단군릉 사안으로 상소문을 올린 백호섭이 말한 것처럼 평양이 단군과 기자, 동명왕이 수도를 세운 곳으로는 인식되기는 했겠

은 비슷하다. 동명왕묘는 1590년 읍지와 1730년 읍지에서는 관련 내용을 서술했으나 1892년 읍지에서는 '祠墓' 항목에 동명왕묘 항목명만 나올 뿐 다른 설명 없이 중화에 있다고만 언급했다.[16] 곧 동명왕묘가 있는 중화 읍지에서 동명왕에 대해 상술하게 되었다. 1730년 읍지에서 을지문덕을 강조했지만 마찬가지로 후대로 가면 을지문덕은 살수 대첩의 무대인 청천강이 있는 안주 읍지나[17] 을지문덕의 출생지인 석다산 아래 불곡촌이 있는 강서 읍지에서 비중 있게 다루게 되었다. 다른 역사 인물들도 마찬가지이다. 선천 읍지에서는 심하전투에서 전사한 선천부사 김응하를, 구성 읍지에서는 귀주대첩에서 전공을 세운 강감찬을 중요하게 내세웠다. 20세기에 나온 『평안북도지』나 『평안남북지』같이 개별 지역을 통합한 道誌를 간행하는 경우에도 각 지역의 유적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있다.[18] 때로는 지역 간에 인식이 달라 상충되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 고려 원종 때와 세종대에 잠시 영변에 병합되었던 운산은 한때 영변에 포함되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단군 건국신화를 수록했는데, 평양 읍지에서 단군의 도읍지 王儉城을 평양으로 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운산 읍지에서는 영변 묘향산으로 보았다. 평양 읍지에서는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은 연개소문도 운산 읍지에서는 東林山 유적과 관련하여 치적을 남긴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19]

---

지만 기자묘는 평양에, 동명왕묘는 중화에, 단군묘는 강동군에 있었으므로 평양이 '세 개의 능이 포진한 황제의 도시'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증화와 강동이 한때 평양의 속읍이었던 적은 있지만 1895년에는 각각 별도의 郡이었다.

16) 南廷哲 編, 『平壤續志』 上, '祠墓'. "原志續志俱有所載, 而墓在中和地, 故前後事實不得昭詳采綠." 동명왕 서술의 변화는 속읍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중화가 평양의 속읍이었지만 19세기 중반에 제작된 『大東地志』에서는 평양의 속읍에서 빠져 있었다.

17) 안주 읍지에서는 을지문덕이 비중 있게 수록되어 있다. 『安州牧邑誌』(1820, 규장각 소장)에는 을지문덕을 모신 淸川祠, 乙支公像을 유적으로 열거했고, '雜誌' 항목에서는 을지문덕에 대해 서술하였다. 안주의 을지문덕 인식은 이정빈, 2013 「1847년 평안도 안주지역의 을지문덕비 건립과 의미: 조선후기 을지문덕 숭상과 평안도인의 지역사 재인식」 『역사와실학』 52 참조.

18) 평안북도지편찬위원회, 1973 『平安北道誌』, 대한공론사; 평안남도편찬위원회, 1900 『평안남도지』, 평안남도편찬위원회.

19) 운산군지편찬위원회, 앞의 책, 194-195면.

읍지는 제작을 기획하거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사실상 지역의 공식 기록이다. 일반적으로 읍지 서문에서 '누군가가 작성한 읍지' 정도로 언급하기 때문에 읍지 제작이 한두 사람이 작성할 수 있는 작업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 읍지를 만들거나 당시 변화된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읍지에 수록될 제반 영역에서 변화된 상황을 파악하고 정리해야 한다. 부세나 창고 등의 내용까지 고려하면 관청의 협력 없이 민간인 몇 명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지방관을 중심으로 관청의 여러 실무자들에게 협력을 요청하거나 이들과 함께 작업해야 하는 일인 것이다. 읍지 제작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수록한 읍지가 별로 없지만,『龍城誌』기록을 보면 읍지를 중수할 때 각 청의 담당자만 해도 鄕老 4명, 鄕校 7명, 龍馬所 2명, 鄕廳 3명, 山城 10명, 獨鎭 11명, 捕廳 6명 등이 나와서 읍지 제작에 대규모 인력이 동원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20] 이렇게 보면 읍지 서술에서 자기 지역의 이해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선행 연구에서 지적했듯이 '張士俊 사건'이 의주 읍지와 용천 및 철산 읍지에서 다르게 서술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21] 이렇게 어떤 인물이나 사건이 각 지역의 관점에서 달리 서술된다면 이것은 결국 도 단위가 아니라 지역 단위가 기억의 공동체라는 의미일 것이다. 또 그 기억의 공동체는 고정불변한 어떤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의 개편 등 지역 범위의 변화에 따라 재조정되는 유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 2) 평양 읍지의 지역민 서술

조선시대에 간행된 평양 읍지의 성격은 다소 복합적이다. 평양에는 평안감영이 있었고 평양부윤은 평안도관찰사이기도 했으므로 감영에서 간행되는『평양지』의 수록 대상은 기본적으로 평양이지만 가끔은 평양만의 정보로 볼 수 없는 부

20)『龍城誌』(1796), '邑誌重修時諸各廳執事' 참조.『용성지』(1895)에도 '邑誌新刊時各廳諸任各門諸執事', '開刊編監' 등에 참여한 인원의 명단이 나온다. 두 읍지는 이태진·이상태 편, 1990『(조선시대)사찬읍지』51, 한국인문과학원에 수록되어 있다.

21) 하명준, 2016 앞의 논문, 86-89면.

분이 있다. 1590년『평양지』만 해도 '分野'는 중국 땅의 별자리이므로 우리나라의 정보라고도 볼 수 없고 '풍속' 역시 평양만의 내용이 아니다. '인물' 항목에 나온 온달, 을지문덕에서 조선 초기 李殷榮, 朱仁輔까지의 인물들은 고구려나 평안도 인물일 수는 있어도 평양 출신이거나 평양의 거주민으로만 한정할 수 없다.[22] 1730년『평양속지』'고사'에는 살수 대첩이 나오고, 관찰사 朴燁과 철산군 椵島의 양씨 성을 가진 관상가와의 일화(1730년 읍지)처럼 평양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더라도 관찰사와 관련되거나, 철산군 가도에서 읍인 전장복과 중국인 상인 상리병의 일화처럼(1837년 읍지) 평양민의 일이어서 수록한 경우도 있다.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이 그 지역의 제반 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읍지를 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읍지는『신증동국여지승람』같은 지리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산천 등의 자연 지리와 행정 사항, '宦蹟' 항목의 지방관 명단, '題詠' 또는 '詩文' 항목에 수록된 외부인의 제영시 등이 그런 예이다. 지역민에 대한 항목은 주로 '인물', '孝烈', 과거 급제자 명단에서 등장했다. 읍지의 수록 항목으로 보면 전체 내용이 산천 또는 지형적 특색, 지방관의 치적, 지역민의 도덕적 교화와 문풍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물론 이렇게 단순화할 수 없다.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과 지역민이 언제나 화합하거나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평양의 경우 지방관 외에 중국으로 오

22) 1730년『평양속지』'인물'에 이승소의 사례가 수록된 것에 대해 선행 연구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장유승, 2010『조선시대 서북문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86-106면 참조. 이 지적은 조선전기 평안도 문인으로 언급된 이들이 평안도 출신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맥락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승소만 문제인 것은 아니다. 1590년『평양지』에서부터 '인물' 항목에 수록된 인물들 면면을 보면 이들이 확실하게 평양 출신이라는 근거가 별로 없다. 이승소 서술에서는 이승소의 집이 평양에 있다고 한 말을 특기했을 뿐이다. 1590년『평양지』'인물'에 실린 金統 역시 평양에는 別墅가 있다고 수록하였다. 이렇게 보면 읍지의 수록 인물은 이 지역 출신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당시 읍지에 인물을 수록할 때 이것이 갈등이 될 만한 문제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적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예컨대 선우협은 평양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평양 읍지 외에『泰川郡邑誌』(1834년 간행) '인물' 조에도 실려 있다. 태어난 곳이 태천현 남촌인데 10세에 아버지를 따라 평양으로 이주했기 때문이다. 출생지와 거주지가 다른 인물이 지명도를 갖게 될 때 출생지든 거주지든 관련된 지역에서는 읍지에 수록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특별히 내세울 점이 없는 읍지라면 관련되는 점이 약간만 있어도 유명한 사람들을 수록하는 경향이 있다.

가는 사신들이 체류하는 곳이기도 했으므로 평양 읍지에서도 현달하거나 유명한 외부인이 중심이 되기 일쑤였다. 읍지가 지역의 현양과 관련된 만큼, 읍지 제작의 실무진인 지역민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에 간행된 5종의 읍지에서 지역민은 대체로 '인물', '효열', 과거급제자 명단에 등장한다. 물론 읍지에 따라 편차가 있다. 어떤 읍지에서는 항목이 분화되기도 하고 어떤 읍지에서는 '文談', '雜志', '詩', '文' 항목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1590년 읍지〉

| | |
|---|---|
| '人物' | 溫達(陽岡王의 사위), 乙支文德, 高延壽(고구려 종실 성씨), 高惠眞(고구려 종실 성씨), 吳先覺(묘청의 난 때 무리에 끼지 않음), 鄭知常(起居注, 묘청의 난 때 가담), 趙仁規(사신으로 활약), 趙瑞(조인규 아들), 趙璉(조서의 동생), 趙璋(조서의 동생), 趙德裕(조련의 아들), 趙濟(조덕유의 아들), 趙浚(조린의 동생), 趙璞(趙思謙의 아들), 金統(평양에 별서가 있었음), 曹蠆(화재가 났을 때 기도를 해서 효험이 있었음), 李殷榮(진사, 청렴한 행적), 朱仁輔(안빈낙도로 유명) |
| '孝烈' | 朴光廉(효성), 黃守(효성), 白亨(효성), 崔夫三(효성), 金景利(효성), 白絢(효성), 金日光(효성), 金義光(효성), 田伏龍(효성), 建金(私奴, 효성), 江哲(營奴, 우애), 春介(營婢, 효성), 頓氏(良女, 효성), 金質(효성), 羅德緝(효성), 金氏(金蘭의 季妻, 열부), 楊德裕(생원, 효성), 李獻忠(효성), 草生(水軍 高貴成의 딸이자 傭人 康論山의 아내, 열부) |
| 과거 | '科貢'(문과, 60명), '武職'(32명), '蓮榜(생원 진사)'(75명) |
| '文談' | 鄭知常(〈送人〉), 정지상(〈西都〉), 정지상의 태몽과 어릴 때 지은 시, 정지상의 〈송인〉 관련 일화, 정지상과 김부식의 일화, 생원 韓克昌,의 시 |
| '雜志' | 주민 金千福, 기생 月飛, 기생 武貞介, 객관 별차 白於仝, 武學 설치. 1460년 부벽루 별시(柳自漢). |
| '詩' | 〈送人〉(정지상), 〈西都〉(정지상) |
| '文' | 盧稙, 〈頓氏碑詞〉 |

〈1730년 읍지〉

| | |
|---|---|
| '人物' | 趙狷(趙浚의 동생), 李承召(평양에 집이 있음), 鮮于浹(유학), 金良彦(심하 전투), 黃胤後 |
| '孝烈' | 田有富(효성), 金瑞焯(효성), 田乃績(전유부 아들, 효성), 黃春卿(효성), 李至誠 李至誠 형제(효성), 康銖(효성), 金起連(효성), 金汝得(효성), 尹坡瑜(효성), 黃戴堯(효성), 楊萬榮(楊顯望 아들, 효성), 朴已業(효성), 黃戴玄(효성), 黃順承(黃戴堯 손자, 효성), 崔世祥(효성), 田聖理(田乃績 손자, 효성), 崔厚發, 韓鴻漸(효성), 崔應台(효성), 韓禾八里(효성), 金仲恕(효성), 金氏(盧富成 아내, 효성), 趙氏(李世禎 아내, 효성), 李氏(李時振 딸, |

| | |
|---|---|
| | 효성), 盧氏(李寔 아내, 열부 효성), 朱氏(金鼎新 아내, 효성), 李氏(李秩 아내, 열부), 李氏(양인의 딸, 절개), 李氏(金珍 아내, 열부), 安氏(金秀澤 아내, 절개), 楊介(노비, 열부), 朴氏(양인의 딸, 절개), 安氏(金愛格 아내, 남편을 위해 복수), 金氏(田遇平 아내, 열부), 李氏(李種福 아내, 열부), 金氏(張發의 아내, 절개), 李氏(文順敏 아내, 열부), 崔氏(金簹 아내, 열부), 楊氏(蔡禹龜 아내, 열부), 金應武(임진왜란 때 전사), 金長鍊(임진왜란 때 전사), 崔應海(심하 전투에서 전사), 楊懿時(절개) |
| '科貢' | '文科'(54명), '武科'(58명), '蔭仕'(35명) '崇仁殿監'(7명), '武南'(5명) '司馬(124명, 문과 급제자도 포함) |
| '文談' | 乙支文德, 鄭知常, 소세양과 평양 유생과의 일화, 참봉 양덕록의 기자정 거울, 명나라 사신 程龍에게 시를 지어준 黃胤後, 청군 징발에 거절한 許灌, 鮮于洽과 鮮于浹 형제의 편지에 답해준 金尙憲, 張世良(유학자) |
| '神異' | 선우협의 꿈 |
| '雜志' | 박엽과 선우협의 관상, 석탄을 만든 허관 |
| '詩' | 〈浮碧樓〉(이승소), 〈대동강〉(이승소), 〈春遊浮碧樓〉(許晳, 144구) |

1590년 읍지는 관찰사 尹斗壽가, 1730년 읍지는 관찰사이자 윤두수의 5대손인 윤유가 편찬을 기획했다. 그런데 윤두수는 평양이 기자의 고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편찬 의도를 분명히 천명했지만, 윤유의 편찬 의식은 잘 드러나 있지 않다. 1730년 읍지는 오히려 지역민이 존재감 있게 나타나 있다. '인물' 항목의 경우 1590년 읍지에서 평양 출신이 확실한 사람은 정지상과 조인규 이하 후손들, 조오, 이은영, 주인보 정도였고 나머지는 고구려와 고려 때 한시적으로라도 평양에 있었을 법한 사람들이었지만, 1730년 읍지의 선우협, 김양언, 황윤후 같은 인물들은 평양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문담', '잡지', 시문 항목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1590년 읍지에서는 정지상이 중심이었고 그 외 재치있는 몇몇 인물들의 일화를 실었는데 '문담'과 '잡지' 항목은 약간의 위계가 있다. 항목으로만 보면 '문담'은 시문 관련 일화를, '잡지'는 그 외의 다양한 내용을 수록했을 것이다. 1590년 읍지의 '문담' 항목 설명은 世敎와 관련된 것도 많으니 자세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었고,[23] '잡지' 항목 설명은 허무맹랑하고 골계적인 내용이라[24] 약간 가벼울 수 있다는 것이었

23) 尹斗壽 編, 『平壤志』 권5, '文談'. "朝野無事, 士大夫以詩酒自娛, 乃上之賜也. 凡諷詠戲謔, 有及平壤者, 皆錄之. 其中閑說話雖有之, 關世敎者亦多, 覽者詳之."

24) 尹斗壽 編, 『平壤志』 권5, '雜志'. "凡志各有其類, 亦有彼此難合未能歸宿, 而恐爲散失不傳, 此雜志之所以附于末也. 孟浪滑稽, 罪我之責, 知難逃矣."

다. 1590년 읍지에서는 이렇게 구분했기 때문에 유명한 인물들은 대체로 '문담'에 수록하였다. 평양인 중에서 정지상과 생원 한극창은 시와 관련된 일화였으므로 '문담'에 실었고 그 외 주민과 기생들의 일화는 '잡지'에 실었다.[25]

반면 1730년 읍지에는 지역민을 현양하는 느낌이 강하다. '문담'과 '신이', '잡지', '시'에 지역민들을 의미 있게 등장시켰다. '문담'은 몽유록 작품인 沈義의 「記夢」의 한 대목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기몽」의 인용에서 강조점은 꿈에서 천상에 있는 詩의 왕국에 갔더니 그곳에서는 을지문덕이 재상으로 있다는 것이었다. 이 부분을 인용한 다음 곧바로 을지문덕이 '우리나라 詩學의 祖宗'이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접반사로 온 소세양의 행태를 보고 평양 유생이 비판하는 시를 지었는데 그 일로 소세양이 앙심을 품어 평안도 사람들의 청요직 길이 막혀버렸다는 내용도 있다.[26] 또 箕子井에서 발견한 오래된 청동거울을 보고 箕子의 덕을 기리는 銘을 쓴 참봉 양덕록의 일화,[27] 명나라 사신이 경탄할 정도였다는 황윤후의 시,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킨 허관, 선우흡, 선우협 형제에게 기자의 유풍을 계승하도록 격려한 김상헌의 시, 당대 大儒이자 한가로운 풍격을 가진 장세량의 시를 수록하였다. '신이'와 '잡지'에서는 선우협이 꿈에서 얻은 계시와 관상가 梁氏가 선우협이 대성하리라고 예언한 일을 수록했으며 '시'에서는 許晳의 〈春遊浮碧樓〉를 수록했다. 시가 수록된 평양인은 이승소와 허절 두 명밖에 없지만, 144구의 장형시 〈춘유부벽루〉를 수록했기 때문에 분량으로 보면 비중이 컸다. 특히 〈춘유부벽루〉 원시의 작가가 許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적으로 훨씬 더 유명한 허봉의 시 대신 지역민인 허절이 지은 차운시를 선택한 점도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다.[28]

---

25) '문담'에 반드시 시문 관련 일화만 수록된 것은 아니다. 1590년 읍지의 경우 조신의 『소문쇄록』에 나온 평양 관련 언급도 있고, 명나라 사신 공용경과 오희맹이 조선의 산천이나 정자를 지날 때 이름을 바꿨다는 내용, 관찰사가 중국 사신을 영송하는 관례, 관찰사 이계맹의 일화, 명나라 사신 허국의 일화는 시문 관련 내용이 아니지만 '문담'에 실려 있다.

26) 『서경시화』와 『칠옹냉설』에서도 이 일화를 찾을 수 있다. 이 두 자료에서는 洪承範이라는 이름을 적시하였다.

27) 1730년 읍지의 '古蹟' 항목에는 李廷龜가 이 거울에 새긴 글씨가 예서이므로 기자 시대 유물로 볼 수 없으며 그 글씨 중 '東王'은 동명왕이라고 봐야 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런 내용이 앞에 실려 있음에도 '문담'에는 다시 양덕록이 이 거울을 기자의 유적으로 보고 명을 지었다는 내용을 수록하였다.

〈1837년 읍지〉

| | |
|---|---|
| '孝烈' | 金錫壽(효성), 崔天光(崔千福 아들, 효성), 田一成(효성), 石之磐(효성), 高擊辰(효성), 鄭泰候(효성), 金孝建(효성), 洪就道(효성), 金兌相(효성), 李運弼(효성), 邊述(효성), 金昌夏(효성), 崔光澤(효성), 盧漢翊(효성), 林景夏(효성), 林遇夏(林景夏 동생, 효성), 李行夏(이지함 이지성 종질, 효성), 金壽國(효성), 洪義忠(효성), 林時大(열녀 池氏 아들, 효성), 金就義(효성), 金鍾嗃(金質 아들, 효성), 金應龍(金鍾嗃 아들, 효성), 金時郁(金應龍 손자, 효성), 玄奉祚(효성), 崔峻碧(崔厚發 아들, 효성), 田起龍(효성), 康學尙(효성), 金益文(효성), 金大洙(金兌相 아들, 효성), 盧亨得(효성), 李志燁(효성), 金景祿(효성), 金得南 金得昌 형제(효성), 金麗發(효성), 韓元九 韓亨九 형제(효성), 金宗澤(효성), 金尙洙(金宗澤 아들, 효성), 金氏(金之珍 아내, 열부), 金處子(金學時 딸, 효성), 韓處子(韓世萬 딸, 절개), 洪氏(張師勛 아내, 효성), 朴氏(崔汝寬 아내, 열부), 金氏(黃汝信 아내, 열부), 全氏(金龍鶴 아내, 열부), 金氏(崔興源 아내, 열부), 方氏(晉興君 金良彦 아내, 열부), 鄭氏(金宗生 아내, 열부), 李氏(李晟 아내, 열부), 池氏(林廷業 아내, 열부), 李氏(楊鎭祚 아내, 열부), 楊氏(黃士明 아내, 열부), 李氏(金履坤 아내, 열부), 李氏(張禮維 아내, 열부), 朱召史(朴允建 아내, 열부), 李氏(朴道常 아내, 열부), 金龍鶴(병자호란 때 전사), 崔千福(임진왜란 때 전사), 崔呂立(정묘호란 때 순절), 全周福 頓貞臣, 林起棟, 法根(임진왜란 때 전사), 高忠敬 朴億 李孝白 高雲達(정묘호란 때 전사), 玉介(기생, 절개) |
| 과거 | '文科'(25명), '武職'(139명), '辛壬軍功秩'(29명), '蔭仕'(77명), '崇仁殿監'(4명), '武南'(13명), 武烈祠參奉(46명), '蓮榜'(139명) |
| '文談' | 洪應起,에게 준 감사 홍명구의 시, 李元葩에 대한 申欽과 尹鳳朝의 시 |
| '雜志' | 全長福과 중국 상인 相里炳의 일화, 桂月香의 사당 義烈祠 건립 |

〈1855년 읍지〉

| | |
|---|---|
| '祠宇' | 관찰사 외 지역민을 제향한 사당: 梨村祠(金汝旭, 金履敬), 魯陽祠(金澤), 星峯祠(黃應聖), 松湖祠(田闢), 眞谷祠(田乃績), 松岡祠(金致一), 蘆溪祠(曺三省, 楊德祿,, 鄭旻), 光山祠(楊懿直, 楊澤九), 井田祠(康逵), 石湖祠(李忠伯), 忠義祠(金泰訖), 影蘆祠(金學起), 守初祠(金器鉉) 一翁亭(書塾, 金正中이 가르치던 곳) |

28) 金漸 編,『西京詩話』 권1. 1730년 읍지의 독특한 성격은『서경시화』의 관련 내용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관찰사 洪萬朝(1698년 부임)가 평양 사인 허절에게 속지 간행을 명하면서 허절이 지은 〈춘유부벽루〉를 수록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허절이 간행한 속지 자체가 1730년 읍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1730년 읍지는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던 것 같다. 1730년 읍지에도 허절의 이 시가 실려 있다. 이처럼 읍지의 공식 편찬 자료에 포함되지 않지만 읍지 제작은 간헐적으로 시도되었던 것 같다. 홍만조의 명으로 허절이 작성했던 속지가 현전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9세기에 나온 張之琬의『箕城謏聞錄』(古2154-19)에 '傳及平壤志'라고 언급한 것이 이 자료가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다.『기성소문록』에는 출전을 '전급평양지'와 '평양지'로 달리 표기하고 있는데 1730년 읍지와 비교해 보면 '전급평양지'로 제시한 부분은 읍지와 표현이 일치하지 않는 반면, '평양지'로 제시한 부분은 읍지와 표현이 동일하다.

| | |
|---|---|
| '孝烈' | 康益省(효성), 金鼎燮(효성), 許世平(효성), 吳載賢(효성), 金尙沂(金宗澤의 아들이자 金尙洙의 동생, 효성), 黃處垕(효성), 李起馨(효성), 朴榮臣(홍경래의 난 때 창의), 金鍾珽(효성, 홍경래의 난 때 창의), 金處子(효성), 梁氏(崔呂立 아내, 열부), 張氏(全寔 아내, 효성 열부), 金氏(鮮于核 아내, 열부), 鮮于氏(趙履燮 아내, 열부), 黃氏(李昱 아내, 효성), 崔氏(張大羽 아내, 열부), 李處子(李和之 딸, 효성) |
| '補遺' | 黃應聖, 趙有孚, 全長福, 趙世珪, 鮮于炆, 黃鎭正, 康逵(항목명은 없지만 '인물' 항목에 들어갈 내용으로 추정) |
| '神異' | 趙鼎耆의 꿈, 태천에 있는 선우협 사당 일화 |
| 과거 | '文科'(8명), '武職'(59명), '別將'(49명), '蔭仕'(28명), '武南'(33명), '武烈祠參奉'(35명), '蓮榜'(36명) |
| '文' | 「思穎影堂紀蹟碑文」(鮮于鏶) |

〈1892년 읍지〉

| | |
|---|---|
| '人物' | 楊懿直(楊德裕의 아들), 曺三省, 楊德祿, 許灌 |
| '學行' | 金台佐, 鮮于浹, 趙之玄, 金益祉, 張世良, 鮮于洽, 黃順承, 楊日榮, 黃敏厚, 崔厚發, 田乃績, 鮮于炆, 李春馦, 李弘廉, 鮮于恪, 張受敎, 康逵, 康垕, 楊峙岳, 金澤, 金器鉉, 楊澤九, 曺光彬, 金近集, 李基賢, 黃彰祖, 鮮于鉍, 洪鼎彬, 鮮于銑, 鮮于鋹, 金鳳煜, 楊基稷, 宋鎭益, 尹鎭性, 金益秀, 楊璉熙, 李洙說, 金命植, 許惇, 黃錫永, 楊基輿, 洪在朝, 楊命浩, 黃岦, 金喆鉉, 趙尙默, 李鍾游, 吳之延 [學行追補] 崔泌, 李國柱 |
| '孝行' | 朴祐錫, 朴在衡, 康鼎煥, 安榮國, 楊日采, 黃彰祖, 金敬修, 洪相宅, 曺禧胤, 崔潛, 楊秉存, 金亨德, 洪大彬, 金致洵, 金觀淳, 李起馨, 金甲壽, 趙興藺, 趙聖徽, 趙昌大, 康公濟, 金鼎杰, 金致精, 朴孝臣, 朴埼, 朴孝培, 李敬采, 李亨祿, 楊遇夏, 田漢鎭, 安道漸, 黃泰項, 楊錫一, 盧致炯, 孫厚良, 李日采, 劉希喆, 金聲烈, 金養烈, 楊鼎熙, 金錫觀, 蔡祚永, 蔡東霖, 崔祥鎭, 金義漸, 金宗衡, 康濟尙, 金起浩, 李振鳳, 朴棟赫, 安聖潤, 金興奎, 朴珉澈, 朴秉珪, 金正喆, 南采項, 南正默, 金鳳齡, 金仁寬, 金學涉, 金起福, 金敬龍, 崔命濟, 李元奎, 金昌杜, 金倬履, 李妻子(李和之 딸) [孝行補] 鄭載凋, 金慶禧, 李義鉉, 金氏(任基鎬 아내) [효행보] 金秉煜, 宋時殷, 洪慶臣 [효행추보] 崔復鎭, 金光喆, 金孝榮, 崔氏(金永錫 아내), 崔興崙(崔天光 후손), 崔學疇(崔興崙 아들) |
| '烈行' | 鮮于氏(趙履燮 아내), 韓氏(金尙鎭 아내), 楊氏(黃棖宗 아내), 金氏(楊基洛 아내), 黃氏(李禧觀 아내), 金氏(蔡東霖 아내), 金氏(金慶禧 아내), 康氏(李日潤 아내), 金氏(金鳳鎭 아내), 金氏(南周烈 아내), 林氏(趙得鼎 아내), 李氏(朴南薰 아내) [烈行補] 金氏(玉英達 아내), 劉氏(安敎錫 아내), 趙氏(梁致漢 아내) |
| '聞見卓行' | 崔濟一, 金用和, 金建爀 |
| 과거 | '文科'(38명), '蔭仕'(167명, 추보 37명), '老職'(66명), '贈職'(孝行卓異 12명, 學行卓異 7명, 孝學卓異 6명, 忠義卓異 5명, 因子孫加資追贈 29명, 19명), '蓮榜'(177명), '武職'(89명), '武南'(85명), '武烈祠參奉'(35명), '武科'(48명) |
| '詩' | 〈練光亭〉(金鼎夏), 〈過旌忠碑閣敬題〉(李應聃) |
| '文' | 「箕子陵紀蹟碑」(黃岦), 「鄕禮紀蹟碑」(黃岦), 「滄浪亭遺稿序」(洪益圭의 문집, 任憲晦), 「鄕校重建記」(金甲壽), 「洪範堂重修事蹟記」(楊基稷) |

시간이 흐를수록 '효열'과 과거 급제자, 仕宦者의 명단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1837년 읍지에서는 이전 읍지에서 누락된 전사자를 '효열'에 추가했으며 홍경래의 난 진압에 참여한 '辛壬軍功秩' 명단을 따로 수록하였다. 1837년 읍지를 간행한 지 20년도 채 안 되어 1855년 읍지가 다시 제작되었는데, 1855년 읍지를 보면 항목 대부분을 생략했으면서도 인물 명단만큼은 새로 작성해서, 이것이 이 읍지를 제작한 주된 이유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읍지에서는 특히 '祠宇' 항목을 비중 있게 수록했는데, 사당에 배향된 인물에는 지역민도 적지 않았다. 1892년 읍지에서는 기존의 '효열'을 '학행', '효행', '열행', '문견탁행'으로 분류했고 사환자에 '老職', '贈職'을 추가했다. 1855년 읍지 '사우'에 실린 인물 중에서 曺三省과 楊德祿, 楊懿直은 1892년 읍지의 '인물'에서, 金澤과 田乃績, 康逵, 金器鉉은 1892년 읍지의 '학행'에서 발견할 수 있다. 시문에 수록한 지역민의 저작도 이전 읍지에 비해 많은 편이다.

5종의 읍지 내용을 개괄해보면 정지상에 비중을 두었던 1590년 읍지와는 달리, 1730년 읍지에서는 당시 지역민의 활약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했다. 또 19세기 3종의 읍지에서는 '효열' 또는 '사우', '학행' 등의 항목에 지역민들의 명단을 싣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곧 읍지의 '효열'을 통해 유교적 교화가 이루어진 곳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면, 1892년에 새롭게 '학행'을 추가하면서 평양의 文風을 입증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 평양인의 자기 인식

### 1) 중앙과의 거리 문제

1590년 읍지의 '문담'에서 가장 부각된 것은 정지상의 시였다. '문담'에서 韓克昌의 탈속적인 시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그의 또 다른 시와 '잡지'에 나온 평양 기생의 일화는 재치와 순발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로 수록된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1590년 읍지에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던 지역민의 존재감이 1730년 읍지에서는 부각시켜야 할 문제로 떠올랐다. 그중 하나가 1590년

읍지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소세양(1486~1562) 일화이다. 소세양 일화는 의주 유학 金德老의 상소문과[29] 김점의 『서경시화』와 『칠옹냉설』에 등장하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공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곧 양덕록[30] 등 읍지 제작에 참여하거나 읍지를 본 지역민들이 지역의 현양 문제를 과제로 삼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양덕록은 1730년 읍지에서 10번 이상 등장할 정도로 지역민들에게는 대단한 인물이었다. 숭인전이나 인헌서원과 관련하여 상소문을 올렸으며 정묘호란 때에는 문묘의 위판을 온전히 보전하는 데 공을 세웠다. 임진왜란 때 선조가 평양에 왔을 때에는 직접 나서서 의견을 개진했으며, 전란 때 의병을 조직하거나 義穀을 모으는 일에도 앞장섰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역에서 발언권을 키워온 인물이었던 것이다.

읍지에는 실명이 나오지 않지만 『서경시화』와 『칠옹냉설』에서 소세양(1486~1562)을 비난하는 시를 지었던 사람이 洪承範(1528~?)이라고 명기했다. 평양 읍지에서 이 일화를 수록한 이유 중 하나는 홍승범이 지역민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홍승범은 1590년 읍지 '문담'에서 판관 金鍊光 선정비에 글을 썼고 그의 글이 김연광의 치적을 잘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언급되었기 때문에, 1590년 읍지에서 아무런 언급도 없다가 1730년 읍지에 갑자기 등장하는 소세양과 홍승범의 일화를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 일화를 다룬 선행 연구에서도 이 일화가 신빙성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이런 일화가 읍지에 수록될 정도로 널리 퍼졌고 지역민들에게 현실감 있는 이야기로 인식된 것은 16세기에 비해 과거 급제자가 많아지면서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현실의 장벽, 곧 門地 같은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에 불만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불만으로 이런 일화가 만들어지고 공유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소세양 일화에서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것은, 시 전문이 전하고 있으므로 평양에 사는 홍승범이 소세양을 비판하는 시를 지었다는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소세양이 그 시를 보고 정말 앙심을 품고 복수하려고 했는지, 또 어떤 개

29) 『영조실록』 1726년 10월 4일 기사.

30) 李時恒, 『和隱集』 권7, 「悔軒楊公行狀」. "尹梧陰斗壽巡察關西, 始纂平壤志, 聞公博學好古, 邀與同修. 公旁搜博采, 贊成一部邑史, 箕都之古今事宲, 燦然可述."

인이 특정 지역 출신의 관료 진출을 저지할 힘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런데 1778년 5월에 시를 빌미로 관찰사가 지역민 黃念祖를 심문하다가 杖殺한 사건은 확실히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이었다.[31] 황염조의 동생 황심조의 격쟁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하루에 세 차례 형을 가했고 자식과 손자를 일시에 배소로 보낸", 매우 보기 드문 사례였다.[32] 문제가 된 것은 불온한 기운이 감지된 그의 시였다.[33] 沈魯崇의 『自著實紀』에는 어사 沈念祖가 이 시를 반역의 무리를 동정하고 조정을 원망한다는 내용으로 읽어서 황염조를 혹독하게 심문했고, 나중에 홍낙순이 평안감사가 되었을 때 이 일을 들춰내서 장살시켰다는 전언을 수록했다.[34] 같은 사건을 보는 黃胤錫의 서술은 다소 결이 달랐다. 황염조는 원래 여러모로 행실이 좋지 못한 사람이었고,[35] 나중에 홍낙순에게 신문을 받을 때도 자기 뒷배를 봐주는 주인이 趙榮順과 계동 홍씨 집안라고 대답하면서 역적을 비호했다는 것이다. 황윤석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평안도 사람들의 시각도 언급했다. 이들은 홍낙순 문하에 평안도 사람들이 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낙순이 자기 지역 사람들을 싫어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36] 물론 황염조 사건은 정조 즉위 직후의 민감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였다. 그렇지만 소세양 일화에 비하면 황염조 사건은 "평안도 사람들을 싫어한" 평안감사가 지역민을 가혹한 처벌

31) 黃胤錫, 『頤齋亂藁』 25. 1778년 5월 18일 일기. 최근에 들은 소문을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32) 『承政院日記』 1781년 4월 11일 기사. "又以刑曹言啓曰, 因平壤居黃心祖擊錚原情, 待明朝草記議處事, 命下矣. 觀此原情內辭緣, 則其兄念祖所坐, 雖不過詩句, 而詳其語意, 極涉殊常, 且一日內三次加刑, 子與孫一時發配, 揆以獄體, 必有委折, 令本道詳査本文案, 論列啓聞後, 稟處, 何如? 傳曰, 允."

33) 황염조가 지은 시 원문은 "匹馬長安百感新, 伊來世事海生塵. 天寒客子投何處, 甲第皆非舊主人."으로, 이전에 한양에서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권세를 잃어 이제는 찾아볼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34) 沈魯崇, 『自著實紀』.

35) 심노숭의 『孝田散稿』 「自著實紀」에서 서술한 황염조의 모습은 황윤석의 기록과는 전혀 다르다. 심노숭은 황염조가 재기가 높고 성격이 강한 편이라 남을 잘 인정하지 않았어도 한양의 사대부들이 그와 교유하는 것을 좋아하고 중시했다고 서술했다. 반면 황윤석은 황염조도, 평안도 사람들도 그렇게 좋지 보지 않았다. 황윤석은 영조대 과거시험장의 폐단을 논하면서 서북 지역에서 시관과 응시생이 뇌물을 주고받아 조정에 물의를 일으켰다는 내용도 비중 있게 수록하였다(『頤齋亂藁』 22. 1776년 9월 초 일기).

36) 黃胤錫, 『頤齋亂藁』 25. 1778년 6월 30일 일기.

하다가 죽게 한 사안으로 공론화할 수 있는 이슈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지역 내에서도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았고, 1837년 읍지나 이후 읍지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37]

그런데 이 황염조 사건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황염조 같은 평안도 사람들이 당시 한양의 사대부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이다.[38] 이 사건을 언급한 자료들을 보면 황염조가 당시 한양의 사대부에게 호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분명한 듯하다.[39] 『이재난고』를 봐도 "최근 재상과 명사들이 관서 사람들에게 문, 무과 생원, 진사를 막론하고 기생에게 대하듯이 아끼고 잘 대해주어서 관서 사람들이 오히려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기에"[40] 홍낙순이 오히려 더 엄하게 다스렸다고 이해한 것처럼, 이 시기 평안도 사람들은 더 이상 중앙과 단절된 외딴 곳의 사람들이 아니었다. 곧 소세양 일화와 황염조 사건이 둘 다 일종의 필

37) 黃胤錫, 『頤齋亂藁』 24, 1778년 3월 22일 일기. 심노숭이 황염조의 사건을 '(심)염조가 (황)염조를 죽였다'는 보기 드문 사건으로 서술한 것에 비해 황윤석은 시에서 '逆心'을 읽혀 죽은 황염조가 평소 행실이 좋지 못했다는 전언을 서술했고 황염조를 바라보는 평안도 사람들의 이율배반적인 시선도 옮겨 놓았다. 처음 이 사건을 들었을 때 황염조는 갇혀 있는 상태였고 평양부의 향교에서는 성균관에 황염조를 유적에서 삭제해 달라는 통문을 돌린 뒤 대사성을 승인을 얻어 처리한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1837년 읍지의 '연방'에서 황염조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38) 황염조 사건은 선행 연구에서도 다루었다. 장유승, 앞의 논문, 108-110면. 황염조 사건을 해석하는 관점에서 이 논문은 본고와 차이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황염조가 중앙 문인과 대응한 지위에 서려고 했고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들어가기 위해 동향 사람들을 멸시하고 배척했기 때문에 동향 사람들이 황염조의 시를 관찰사 홍낙순에게 알려서 문제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본고는 황염조가 중앙 문인과 가까운 관계를 형성한 당시 관서 사람들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39) 黃胤錫, 『頤齋亂藁』 25. 1778년 6월 30일 일기에는 진사 황염조가 승지에 오른 황윤후의 후손의 후손이자 몽와 김창집의 추천으로 명릉참봉에 제수된 黃德承의 손자였고, 서울에 있을 때 민씨, 홍씨, 조씨 같은 노론 대가들과 잘 지냈으며, 김창집과의 인연 덕분에 김원행이 있는 미상에 드나들 수 있었다고 서술했다. 특히 황염조는 자기 가문에 대한 자긍심이 강해서 기자 후손으로 인식된 鮮于氏인 자기 부인과 서로 門地를 자랑하다가 크게 다툴 정도였다. 또 『을병연행록』에는 홍대용이 사행가는 도중에 평양에 잠시 들렀을 때 황염조가 안내하여 평양 구경을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40) 黃胤錫, 『頤齋亂藁』 24, 1778년 3월 22일 일기. "大抵近年宰相名士之於西關人, 無論文武生進, 憐之愛之弄之畜之, 無別於妓物, 故西關人反生驕意."

화 사건으로 인식되었더라도 18세기 초 지역민이 이것을 문제 삼았던 것과는 달리 18세기 후반 이후 지역민에게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아니었다. 18세기 중후반에는 상황이 달라져서 어떻게 보면 18세기 초 이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이 상당 부분 호전되었다고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1892년 읍지의 '학행' 항목이다.

1892년 읍지의 '학행' 항목에 수록된 인물은 追補 항목까지 합하면 50명이다. 각 인물의 수록 내용에는 사승 관계도 언급되어 있는데 평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관서 성리학의 비조로 평가받는 선우협이었다. 선우협을 중심으로 스승 金台佐, 일가로 鮮于洽, 鮮于忣, 鮮于鉍, 鮮于銑, 鮮于鋐, 제자로 趙之玄, 金益祉, 張世良이 있었다. 그동안 평안도 지역 학통은 자생적인 성격이 강하고 중앙 문인과의 사승 관계가 약하다고 지적되어 왔는데,[41] 평양의 경우 이 지적은 18세기 전반기에 대해서만 유효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 중후반 이후로 가면 중앙 문인들과의 사승 관계가 두드러진다. '학행'에 수록된 인물 설명에 따르면 黃順承은 김창협 문하에 있었고, 李春馦과 張受敎는 김원행의 문하에 있었다. 康逵와 洪鼎彬은 李縡의 문하에 있었고, 楊峙岳은 金鍾厚와 金履安의 제자였으며, 金澤은 權尙夏의 문하에 있었다. 宋鎭益은 宋穉圭의 문하에, 金益秀는 洪直弼의 문하에 있었고, 金命植은 趙秉憲의 문하에 있었으며, 楊基興, 楊命浩, 金喆鉉, 吳之延은 任憲晦의 제자였다. 추보된 崔泌의 경우 종조부 崔泰齊에게서 배웠는데 최태제가 任徵夏(1687~1730)의 문인이었다고 부기되어 있으므로 이 기록을 믿는다면 중앙 문인과 이어지기 시작한 시점을 18세기 초반으로 올려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42] 이것은 한양 사대부와 평안도 문인

41) 장유승, 앞의 논문, 43면 참조. 이 논문에서는 평안도 지역 문인들의 특성으로 역학에 주력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1892년 평양 읍지의 '학행' 서술에서는 성리학과 경학에 대한 언급도 많다. 1730년 읍지를 보면 김상헌과 송시열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선우협이 지역에서 더욱 추대될 수 있었던 것 같다.

42) 황윤석은 평양 진사 黃大厚와 만나 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일을 서술했는데, 여기에서 황대후를 윤봉구와 김원행의 문하에 왕래했던 인물로 설명하였다.(『頤齋亂藁』 1. 1766년 7월 18일 일기) 본고의 심사서에서는 Sun Joo Kim의 *Voice from the North*의 서술을 근거로 이시항(1672~1736)의 경우 柳尙運과 金構, 鄭浹 등에게 배웠고 유상운의 서울 집에 산 적이 있으므로 17세기 말에 이미 이런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시항

이 가까운 관계였다고 한『이재난고』의 서술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실체도 없는 소세양 일화가 18세기 초반 지역민에게 와닿았던 것은 이 사건을 관료 진출 문제와 연결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청요직 진출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지만 그래도 일반 사인들에게는 과거 급제가 더 절실한 문제였는데, 민심 달래기 차원으로 마련한 별시도 시간이 갈수록 빈번하게 시행되었다. 거의 대부분 항목이 생략된 1855년 읍지를 제외한 4종의 읍지의 '고사' 항목에는 1460년 별시부터 이후 설행된 별시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1730년 읍지를 포함한 3종의 읍지에 나온 별과 설행 연도는 1626년, 1636년(합격자 발표 취소), 1643년, 1669년, 1695년, 1717년, 1728년, 1746년, 1774년, 1782년, 1815년, 1826년, 1866년, 1886년, 1889년, 1890년, 1892년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17세기 이후 점차 설행 횟수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별시〉

| | | |
|---|---|---|
| 1590년 | '古事' | 1460년 평안도 황해도 유생을 대상으로 한 부벽루 별시(1등 2명, 2등 3명, 3등 17명)와 무사 1,800명이 합격한 庚辰武科 |
| 1730년 | '古事' | 1626년 별과 설행, 1636년 별과, 만과 설행 이후 다시 무과 설행(청군의 습격으로 합격자 발표 취소), 1643년 별과 설행, 1669년 별과 설행, 1695년 별과 설행(청남 청북 합격자 할당), 1717년 별과 설행, 1728년 별과 설행(강변 1인을 합격자 정원에 추가). |
| 1837년 | '古事' | 1746년 도과, 1774년 도과, 1782년 도과, 순조 1815년 도과, 1826년 도과 설행 |
| 1892년 | '古事' | 1866년 도과 설행, 1886년 도과 설행, 1889년 청남과 청북, 강변에서 삼도회승보시 설행, 1890년 향시 합격자 인원 증설, 1892년 德行科 신설 |

〈외관직〉

| | | |
|---|---|---|
| 1590년 | '沿革' | 영숭전 참봉 2명(지역인 또는 타처인), 기자전 참봉 1명(차첩으로 임명) |
| 1730년 | '沿革' | 기자전 참봉, 숭인전감, 保山萬戶, 숭령전 참봉 2인<br>1612년 기자전 참봉을 숭인전감으로 바꾸고 선우씨가 세습. 1725년 숭령전 참봉 2인을 예조에서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가 1729년 신망 있는 지역 출신자 중 세 후보를 이조에서 계문을 올려 임명해달라고 요청. |

의 행력을 보면 이들에게 수학한 시기는 1684~1688년 사이로 보인다. 유상운은 1684년에 평안도관찰사로 부임했고 김구는 1685년경에는 용강현령이었으며, 정협은 1685년 평양서윤으로 왔으므로 지방관들이 지역 학생들을 가르친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 언급한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

| | | |
|---|---|---|
| 1837년 | '沿革' | 숭인전감, 숭령전 참봉 2인(京職 遷轉), 武烈祠 參奉 2인(1791년 시작)[43] |
| 1855년 | '事蹟' | 1824년 감사 金祖淳이 숭인전감을 숭인전 참봉으로, 숭인전 참봉과 숭령전 참봉을 모두 東班職으로 바꾸고 하나는 선우씨 세습으로, 하나는 淸南과 淸北을 차례로 등용하고 京職 遷轉.[44] 1853년 감사 金炳冀가 무열사 참봉 한 자리에 이여송의 자손을 세습하게 하고 한 자리는 무과로 등용하는 의견을 전달. |
| 1892년 | '官制' | 숭인전 참봉 2인, 숭령전 참봉 2인, 箕子陵令 1인, 기자능 참봉 1인, 무열사 참봉 2인, 保山別將 |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진 변화는 별시 시행 횟수만이 아니었다. 지역민이 맡았던 외관직도 점차 京職으로 전환되었다. 읍지에 따라 항목 명칭은 다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벼슬 자리가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19세기에는 참봉이 근무 일수를 채우면 경직으로 천전되는 변화가 나타났는데, 1837년 읍지에 숭령전 참봉과 숭인전 참봉이 東班職으로 전환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45] 참봉은 처음에는 다른 지역 출신도 할 수 있었지만 1730년 읍지부터는 지역민으로 한정했고, 인원도 3명에서 5명, 8명으로 늘어났다. 18세기 초에 청요직 진출을 문제삼았던 이유가 중앙에서 평안도 사정을 모른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었다면,[46] 이제는 참봉 같은 외관직을 맡은 뒤에는 경직으로 갈 수 있었다.

### 2) 문명과 '首都' 의식

1590년 읍지의 '연혁'에서는 평양이 三朝鮮(前朝鮮, 後朝鮮, 衛滿朝鮮)과 고구려의 도읍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위만은 부정적으로 인식되었지만 단군은

43) 『정조실록』에 따르면 무열사에 참봉 2명을 둔 시점은 12월 16일이다.

44) 『순조실록』 1824년 9월 7일 기사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다. 김조순의 제안은 숭령전 참봉 두 자리 중 하나는 令으로 바꾸고 숭인전감도 참봉 두 자리로 바꾸어서 하나는 선우씨 중에서 차출하고 다른 하나는 숭령전 참봉과 함께 청남, 청북으로 할당하여 文行이 있는 자는 임기가 차면 京司로 천전하고 令은 문관과 음관을 번갈아 차출하되 본도 사람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45) 숭인전 참봉의 경직 천전은 1837년 읍지 '연혁'에 세주로 나와 있지만 1855년 읍지의 '사적'에서 다시 강조되었다.

46) 하명준, 2014 「18세기 전반 평안도 유생의 지역인식과 관서변무소 사건」 『한국사연구』 167, p.49 참조. 이 논문에서는 李萬秋(1677~1731)의 「關西弊瘼說」(『安窩先生文集』 권3)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사당을 통해, 기자는 외성의 정전이나 기자묘 등의 관련 유적을 통해 부각되었다. 고구려의 경우에는『東國通鑑』과『三國史記』같은 역사서가 있었으므로 '고사'에서 구체적이고도 긴 분량의 내용을 수록할 수 있었다. 곧 遷都를 결심하고 평양에 성을 쌓은 고구려 동천왕으로 시작해서 수·당의 고구려 침공 등 고구려의 중요한 사건들을 읍지에 반영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1590년 읍지에서 가장 강조한 인물은 기자였다. 평양을 기자의 고장으로 각인시킨 것은 이미 이전에『箕子志』를 편찬한 적이 있었던 관찰사 윤두수가 읍지 제작을 주도하면서 편찬 의도를 구현한 결과일 것이다. 고려 시대나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평양에 간 사람들이 떠올리는 사람은 고조선의 시조인 단군이나 고구려의 동명왕이었다.[47] 그런데 단군이나 동명왕이 전설적이거나 비현실적인 느낌이었다면, 기자는 우리나라에 문명을 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효용성이 있었다. 평양을 오가는 명 사신들이 큰 관심을 보이면서, 또 그동안 변방의 遐鄕 정도로 치부되던 평양이 사실은 문명이 시작되었던 곳이라는 근거가 됨으로써 평양의 문화적 위상이 크게 높아지게 되었다. 단군과 동명왕이 과거의 번영을 상징했던 반면, 기자는 이제 현실에서 강력한 힘을 행사하게 되었던 것이다.

기자가 와서 교화를 베풀었던 지역이라는 인식이 굳어지면서 평양은 평안도 안에서도 특수한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1730년 읍지 제작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전보다 지역민의 위상과 지역 차별에 문제의식을 보였지만, 1693년에 성천부사를 역임한 李禎이 평안도의 풍속을 비난한 것에 평양 사인 盧警來가 항의하는 상소문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48] 이 사안을 읍지에 수록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이 애초에 이정이 성천 부사로 향시 시험관이 되었을 때 응시생들이 규정을 어기는 것을 계기로 알려진 만큼[49] 평양과 관련 없는 문제이기도 했지만, 평안도의 풍속을 비판하더라도 평양은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자의 고장을 사실로 여기는 한, 평양은 문명이 깃든 곳이었다.

---

47) 이은주, 2018「만들어진 유적, 평양의 로컬리티」『돈암어문학』34, 76-79면.

48)『승정원일기』1693년 8월 4일 기사.

49)『漆翁冷屑』上,「鯁直」. "肅廟己酉有朝士李禎, 以成都太守參考鄕試, 嗛多士之侵已屹吾西風俗有禽狄等停擧. 盧槐軒警來唾手曰, 吾不爲老蟲飮弩矢, 卽抗章斥禎大姦猾誣上不道. 得旨禎特罷言職, 至於流配. 近李寢郎萬秋彈呂必禧事同."

이후 읍지를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평양에서는 기자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자 존숭에는 지역민도 예외가 아니었다. 1730년 읍지에서는 曹三省, 楊德祿, 鄭旻이 상소를 올려 기자 사당을 '崇仁殿'으로 이름을 바꾸고 기자의 후예인 鮮于 집안에서 典監을 세습하도록 했고, 원래 '學古堂'이라는 精舍가 1608년 참봉 金乃聲과 생원 양덕록이 상소문을 올려 '仁賢書院'으로 사액받았다. 1730년 읍지의 '神異'에는 당시 지역에서 추앙받던 선우협의 일화가 실려 있는데, 선우협이 열두 살이었을 때 기자전 재실에서 낮잠을 자다가 꿈에 나타난 노인이 5언시를 주고 감사가 어디에 있으니 주라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감사가 그 장소에 있었고 시는 마치 기자가 쓴 것 같은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숙종이 쓴 〈箕子墓〉와 「箕子贊」, 李廷龜의 「崇仁殿碑文」, 선우협의 묘갈명인 송시열의 「龍谷書院碑文」도 수록되어 있어 당시 기자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평양에 있는 기자의 유적은 평양성 북문인 七星門 근처의 箕子墓와 지팡이인 箕子杖을 제외하면 모두 성 남쪽인 외성에 있었다. 외성 자체가 기자 때 만들어졌고 정전은 기자가 구획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외성에 箕子宮과 箕子井이 있었던 것이다. 1606년에는 관찰사 朴東亮이 기자정에 기자정각을 세웠고, 1725년에는 관찰사 李廷濟가 장계를 올려 외성에 있는 기자궁에 담을 두르고 九疇壇과 문, 사적비를 세웠다. 1728년에는 養正齋라는 강학공간이 외성 烏灘에 있었는데, 1740년에 부임한 徐宗玉이 외성의 정전에 이건하여 '三益齋'라고 했고, 다시 1776년에 서종옥의 아들 徐命膺이 관찰사로 와서 九疇閣을 세운 뒤 이 건물들을 합쳐 九三院이라고 하였다. 1824년에는 숭인전의 監을 없애고 참봉 2명을 두되, 한 명은 선우씨가 세습하게 하고 근무 일수를 채우면 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여러 관찰사가 기자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자에 대한 기록도 계속 보충되었다. 1837년 읍지에 추가된 권5의 文에는 기자와 관련해서 이전 읍지에 수록되지 않은 卞季良의 「箕子廟碑」와 명 사신 王敬民의 「謁箕子廟賦幷序」, 1476년에 명 사신 祁順이 와서 기자 사당을 보고 지은 賦에 차운한 徐居正의 부, 왕경민의 부에 차운한 李珥의 부, 사행갈 때 쓴 南龍翼의 「箕子廟碑銘幷序」, 李廷濟의 「箕子宮碑文」을 追錄하였다. 여기에 徐命膺의 「箕子井田紀績碑」와 「箕

井學政本末序」, 金祖淳의 「仁賢書院廟碑文」, 沈象奎의 「仁賢書院門樓重修記」, 鄭元容의 「仁賢書院藏修記」까지 수록하여 기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19세기 중후반에도 이런 기조가 이어져서 1869년에는 외성에 사는 유생들이 黃州에 있던 기자 영정을 가지고 와서 사당을 세워 봉안한 뒤 제사를 지냈고, 1886년에는 관찰사 남정철이 기자묘에 재실을 만들고 묘를 수호하는 사람을 두었으며, 1889년에는 문관 등 관리들이 상소를 올려 기자묘를 기자릉으로 높이고 陵官을 두게 되었다. 1892년 읍지에 수록한 남정철의 「箕聖墓墓庭碑」와 閔鍾默의 「箕子陵碑」, 閔泳駿의 「箕子陵陵官先生案序」 및 「寅淸齋記」, 「箕子陵丁字閣重建上梁文」등의 글은 이런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다.

1902년에 외성에는 豐慶宮이 창건되기 시작했다. 당시 고종은 兩京制를 추진하면서 평양을 제2의 수도로 작점했는데, 이런 선정 이유에는 교통과 군사적 요충지 등 여러 요인이 있었겠지만[50] 고종이 내린 조령에 따르면 "기자가 정한 천 년의 역사를 가진 옛 도읍으로서 예법과 문명이 여기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명분이 되었다.[51]

西京復設의 상징이었던 풍경궁 건설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다. 평양이 제2의 수도로 거듭나는 것은 지역민들에게 감격스러운 일일 수 있겠지만 이전의 청일전쟁과 당시 혼란스러운 분위기, 풍경궁 건설이 비리로 중단되는 과정에서 풍경궁 건설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곧이어 일제 식민지 시기로 접어들었지만 평양 읍지 간행은 지속되었다. 주로 일본인이 편찬 주체가 되어 『平壤全誌』(平壤商業會議所 편)과 『平壤小誌』(平壤府 또는 平安南道廳 편) 등을 간행했다. 예전처럼 관청과 협력하여 최신 정보를 입수하기가 힘들다는 한계는 있었지만 평양의 지역민들도 따로 읍지를 제작했다. 1934년에 盧元熲 등이 만든 『平壤大誌』가, 2년 뒤인 1936년에 張道斌이 간행한 『平壤誌』가 간행되었다. 중화

50) 김윤정, 2007 「평양 풍경궁의 영건과 전용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논문; 김윤정·서치상, 2009 「광무 6년의 평양 풍경궁 창건공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5(9); 장영숙, 2020 「대한제국기 고종의 慶宮 건립을 둘러싼 제 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3.

51) 『고종실록』 1902년 5월 6일 기사. 번역문은 국사편찬위원회의 『조선왕조실록』 사이트의 번역문을 따랐다.

출신 장도빈의 『평양지』가 민족주의적 입장을 견지한 개인 저술의 성격을 띤 것과는 달리, 『평양대지』는 『평양전지』의 내용을 가져와서 당시 상황을 정리하는 한편, 조선시대에 간행된 기존 읍지를 종합하였다. 무엇보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평양 읍지는 대체로 관찰사라는 외부인과 실무자라는 지역민이 함께 작업하면서 지역의 이해와 현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평양대지』는 지역민들이 제작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당시 지역민의 관심사와 이해관계를 선명하게 드러낸 읍지였다.[52]

『평양대지』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편찬 의도이다. 3편의 서문과 '범례'에는 기존의 읍지를 이 시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당시 平南參與官이었던 兪萬兼이 평양이 '서경'이었고 가장 아름다운 곳이며 오랫동안 도읍지였다가 왕이 행행하는 곳으로, 그 뒤에는 사행 경유지로 조명된 지역적 성격을 정리했다면, 지역 사인 曹秉源과 崔晶煥은 당시의 시대 분위기 속에서 평양이 갖는 의미와 기존 읍지의 문제점을 강조하였다.

> 한 차례 한나라의 공격을 받고 다시 당나라의 침략을 받았지만 성왕과 현신의 큰 덕과 위엄이 역사에 빛나고 세상에 우뚝하여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다. 신라 말 고려로 들어오면 중국과는 다투지 않게 되었지만 이로 인해 중국을 숭상하고 스스로 낮추게 되었고 조선으로 들어와서는 그런 경향이 매우 심해져서 걸핏하면 중화를 사모하고 스스로를 망각하기에 이르러 자기 사적을 무시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도 몰랐기에 옛 역사 대부분을 거의 잃어 소략해졌다. 더욱이 관서 지역을 외지고 오랑캐 습속에 물들어 교화의 밖에 있다고 여겨 내치기에 이르렀다. 우리 관서 지역은 문무 모두 뛰어나지만 마음에 보배를 품은 채 재야에서 울분을 품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름을 떨치지 못했으니 사적도 전해지지 않아 나중에 역사를 쓰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 없다. 선조 초에 『평양지』를 편찬하였는데 산천, 누대, 인물, 풍토, 강역, 도로 등 인사와 관련된 것들을 모두 상세하게 기록하였지만 이른바 고금의 역사를 모은 범위가 넓지 않아 내용이 너무 간략하여 먼 예전의 일과 그 실체를 알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후에 속지를 간행하는 사람도 이런

52) 『평양대지』는 지역민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한다는 점에서 당시 평양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와 함께 인물과 관련된 부분에서 당시에 거주한 유력 일본인들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제13편 '인물'은 이전 읍지에 수록된 전체 명단을 망라했는데 여기에 일본인 74명의 이름과 출신지, 현재 직함을 추가하였다. 마지막 부분에 있는 관직 명단에도 일본인들이 함께 실려 있다.

구습을 이어 옛일로 범위를 넓히지도, 이 지역 일을 상세하게 담지도 못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 습속에 안일하게 빠져 경관에게 아부하고 중국 사신을 높이는 한편 자기 지역에 소홀한 서술의 편향성을 탈피하지 못했으니 이는 진실로 우리 평양 읍지의 잘못된 부분이지만 뒤늦게 개탄한들 어찌하겠는가. 최근에 노원경 군이 읍의 역사를 편수한다는 소식을 듣고 대동강 동쪽에 있는 군에게 찾아가 그의 원고를 얻어볼 수 있었다. 거의 읍지는 기존 읍지를 포괄하면서 여기에 더해 현대의 대체적인 시설과 역대 제왕의 역사를 추가하였으니 완전히 갖추어졌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수록 범위가 넓고 치우친 우리 고장을 현양하려는 데 뜻을 두었다. 이전 사람이 하지 못했던 부분을 썼기에 이 또한 안목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일깨우게 하기에 충분하다.[53] (밑줄은 인용자 표시)

곧 이 시기에 가장 문제로 떠오른 것은 고대사에서는 이 지역이 문명이 있는 곳이었는데 그동안 이 사실을 도외시했다는 점과 자기 나라를 소홀히 하는 습속에 빠져 자기 지역을 현양하는 데 소홀했다는 점이었다. 『평양대지』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역민으로 읍지를 간행할 때 넣어야 할 부분을 잘 담았다고 평가한 것인데, 이 점은 '범례'에서 제영시와 관련해서 '自貶'이라고 규정한 데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54] 『평양대지』에는 김점의 『서경시화』와 『칠옹냉설』에 있

53) 盧元熲 撰, 『平壤大誌』, 조병원의 서문. "夫一毁于漢寇, 再火于唐醜, 其聖帝明王賢臣偉人之大德巍勳, 耀日月而軒天地者, 遂未免蔑然沈沒. 迨于羅之末麗之中國旣不競, 因崇漢而自小, 至李氏而太甚焉, 動輒慕華, 遽至忘我, 而不知悔其史事亦有累, 而古史亦多遺簡, 矧玆關西指以遐甿習胡置化外而榛之. 吾西之文武俊良, 懷其寶而含鬱於林下者, 不知其千百人也. 名旣不揚, 事亦無聞, 後之爲史者, 雖欲溯究不能也. 宣廟之初冇纂一部平壤誌, 而其山川樓臺人物風土疆域道路, 凡關於人事者, 不無詳記, 而其所謂古今之史採蒐不廣, 其所記者太簡, 亦困於窮遠核實. 後之續而記者, 亦倣其舊而不能博古詳我, 盖當時之人, 皆狃安於習熟, 而不振其所述偏傾於諛京宦尊漢价, 而踈慢於吾邦, 此誠俱失誌吾之平壤也, 追慨何及. 近間盧元穎君編修邑史, 乃訪君於浿水之東, 得覽其藁, 其所以誌者盖包括舊誌, 益之以現代之一般施設, 又增以歷代帝王之略史, 雖不能謂其全備, 而採遠而記濶尤益, 致意於揚吾邦之側陋. 發前人之所未遑, 亦足以新人之目警人之志矣."

54) 盧元熲 撰, 『平壤大誌』「凡例」. "古詩所載之詩文, 全屬於華使之作朝宦之題, 而本邦人之所題詠者闕而不載. 事涉於自貶, 是雖由於古人謙抑之意, 其所自貶者豈人之情哉. 玆敢拾遺本邦之作並錄焉." 물론 이 구절은 읍지의 일반적인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지적은 아니다. 평양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지방 읍지에는 명성 있는 사람의 제영시를 주로 수록하는데, 이들의 지명도를 통해 외부에서는 잘 몰랐던 지역의 어떤 특성을 알리기 위해 고안된 방식이므로 지명도가 거의 없는 지역민이 쓴 시문이 현실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는 내용 중 평양인과 관련된 내용 일부를 전재했고, 또 제영시에서 '平壤人詩文'(본문에서는 '平壤人之名作' 항목으로 제시)을 추가했는데 여기에 추가한 시의 상당 부분도 『서경시화』에 수록된 평양인들의 작품이다. '자폄'을 문제 삼는 이런 태도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평양의 위상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어떤 자긍심을 갖게 된 결과가 아닌가 한다. 특히 이 서문에서 "역대 제왕의 역사를 추가하였다"는 구절도 주목할 부분이다.[55] 이런 자신감은 1590년 읍지에서 기자의 고장을 명시한 이래 평양이 문명이 깃든 곳으로 인식되었고 이후 기자와 관련된 여러 시설이 확충되는 과정과 기자릉으로 승격된 사건, 20세기 초에 다시 제2의 수도인 '서경'으로 낙점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4. 결론

본고의 논의는 '서북' 또는 '관서'가 정체성이나 결속력에서 단일한 범주가 아니므로 평안도의 내부 담론을 논의하기 이전에 지역의 내부 인식을 종합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또 시기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 만큼 이런 내부 인식이 시대적 변천을 보인다는 점도 고려하고자 했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평안도 차별 담론을 의식하면서 지역 차원에서 이런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편의상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시대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평양 읍지를 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평안도 지역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양상에 주목하였다. 평안도 풍속을 비방했다는 점에서 반향을 일으켰던 여필희의 관서변무소 사건은 청북의 일부 지역 읍지에서만 확인되며, 오히려 같은 청북에 속해 있는 강계의 읍지처럼 여필희를 긍정적인 인물로 서술하는 경우도 있다. 이전까지 평양 읍지에 포함시켰던 단군과 동명왕 등의 인물들이 시대가

55) 장도빈의 역사에서 '기자' 관련 내용을 모두 뺀 『평양지』와 달리 『평양대지』에는 여전히 기자조선 - 箕子世系 항목을 고대사에 포함시켰다. 일반적으로 읍지의 역사라면 지역사로 한정해서 서술하는데, 『평양대지』의 역사는 왕에 대한 약술적 성격이 강해서 간략한 국사를 서술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흐르면서 여러 지역에서 읍지가 간행되자 유적을 중심으로 관련 인물이 재편되는 양상도 나타났다.

5종의 평양 읍지에 나타난 시대적 변화로 볼 때 지역민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하나는 시간이 갈수록 중앙의 인물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1730년 읍지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지역민에 대한 인식은 소세양 일화처럼 중앙의 권력과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나타났으나 19세기 읍지로 보면 중앙 문인과의 사승 관계, 별시 횟수의 증가, 경관직으로의 전환처럼 중앙과의 친연성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윤두수가 평양에서 기자의 존재를 부각시킨 이래 기자는 문명의 상징이 되어 평양의 도시 이미지를 새로 거듭나게 했다는 점이다. 평양은 고조선과 고구려의 도읍지이기도 했지만 단군과 동명왕은 기자만큼 의미 있게 인식되지 않았다. 기자와 관련된 시설을 확충하고 기자묘를 기자릉으로 승격시키고 20세기 초에 외성에 풍경궁 건설을 착공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평양은 여타 평안도 지역과는 다른 위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평양대지』는 기존 읍지를 정리하면서 지역민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 것을 '자폄'이라고 규정했는데, 이후에 나온 『평안남도지』 역시 '관서변무소'와 차별에 초점을 맞춘 『평안북도지』와는 다른 기조를 보였다.[56] 이러한 모습은 19세기말

56) 평안북도지편찬위원회, 앞의 책, 642면. '관서변무소' 나중에 『평안남도지』와 『평안북도지』가 따로 간행되었을 때 유독 『평안북도지』에서 관서변무소나 평안도인에 대한 차별을 문제삼았던 것도 이런 일들이 지역민에게 전해져서 기억의 역사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예컨대 『평안북도지』의 '6. 과거에 비친 「서북」 푸대접'에서는 선조대 의주에서 본 도과에서 "수많은 인재들을 시취"했고 그래서 그때 합격증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도 『국조방목』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이것은 "서도내기"여서 뺀 것이고 이런 일들이 홍경래 난의 원인이 되었다고 해석했다. 반면 『龍城誌』(『조선시대)사찬읍지』 51 수록) '忠義'에 수록된 文愼幾 설명에 따르면 문신기가 이때 자기가 합격자 명단 끝에 있는 것을 보고 이 시험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서 시험을 주관한 윤두수를 비방하는 항소를 올렸다가 처벌받을 상황에 놓였는데 문신기의 재주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韻字를 내자 곧바로 7언 율시를 짓는 것을 보고 죄를 용서하고 문신기는 참봉에 임명하고 시험은 파방하라는 명을 내렸다고 한다. 이런 기록이 청북의 몇몇 지방과 용천에서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진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실록에서 1592년 7월 2일에 별시 문과를 설행해서 鄭宗溟, 李自海, 崔東立 및 의주 사람 洪適을 뽑았다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른바 '龍灣別試'의 합격자들이 『국조방목』에 실려 있으므로 『국조방목』에 실려 있지 않다는 주장이 어떤 정보에 근

20세기 초에 평양의 도시적 위상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생겨난 자긍심의 발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통시적으로 조망할 때 평양인의 자기 인식은 '평안도 차별' 담론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제어 : 평양, 평양인, 평양 읍지, 지역민 현양, 기억 공동체, 자기 인식

투고일(2021. 4. 26), 심사시작일(2021. 4. 28), 심사완료일(2021. 5. 14)

거한 서술인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관서변무소」의 연장선상에서 용만별시가 비정상으로 처리되었다는 이야기가 지역 사회에서 전해졌던 것 같다.

〈Abstract〉

# Pyongyangites's Collective Memory

Yi, Eunju *

In the discussion of this paper, "Northwest" or "Gwanseo" is not a single category in terms of identity and solidarity, so before discussing the internal discourse of Pyeongan-do, the work of understand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gion as a unit is the first step. I also stated that the more the situation changes depending on the time, the more such internal perceptions change with the times. In this paper, I confirmed the changes of the times from the 16th century to the 20th century in order to confirm such internal perceptions at the regional level, while being aware of the Pyongyang discrimination discourse that has been raised so far. Discussions were conducted on gazetteers of Pyongyang for convenience.

For this reason, I first focused on the aspect that shows the variation between Pyeongan-do. Looking at the changes in the times that appeared in the five gazetteers of Pyongyang, the collective memory of Pyongyangites shows two major directions. One is that as time goes by, they have a closer relationship with the people in seoul. Pyongyangites's collective memory, which began to appear in gazetteers in 1730, appeared in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of being separated from the central power, as in the Soseyang anecdote. But a close affinity with the center is strongly expressed as time goes on, such as the relationship,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Provincial Examination, and the conversion to central government office. Second, since Yundusu highlighted the existence of Gija in Pyongyang, Gija became a symbol of civilization and have reborn the image of the city of Pyongyang. In the process of expanding Gija and related facilities, promoting Gija's tomb to a Gija's royal tomb, and starting construction of Punggyoung palace in the outer castle in the early 20th century, Pyongyang was recognized as a different image from the rest in Pyeongan-do. From this

* Lecture-only Professor, Faculty of Liber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erspective, Pyongyangites's collective memory is different from that of Pyeongan-do discrimination.

**Key Words :** Pyongyang, Pyongyangites, gazetteers of Pyongyang, A community of the memory, collective memory, appreciation of local distinctiveness